

청소년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공은희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석사과정)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저축은 생애주기가설에서 언급되어지는 재정적 자원의 불균형에 대비하여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득을 비축하여 두는 재무설계 행동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가계나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양세정 1997, 1998; 양세정·이영호 1996; 심영 1998, 2000; 차경욱 2003; 성영애·공은희 2007)가 대부분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저축은 하나의 연구주제로 다뤄지기 보다는 용돈관리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저축여부와 목적, 저축 이유, 저축률, 추가용돈 관리 방법, 저축의식 등은 하나의 하위변수로만 분석(채정애,1983; 정성임,1986; 차경실,1987; 임청자,1989; 박경숙,1992; 성화선·김정숙,2000; 우해전,2006)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축실태 및 저축설계행동을 포함한 저축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중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실태는 어떠한가?

저축은 조사대상자 중 63.5%만이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학생은 13.2% 밖에 되지 않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축을 증진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한편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월평균 저축액은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총 저축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축을 처음 시작한 학생이 많았고, 주요 목적은 미래를 대비(44.3%)하기 위해서였다. 저축을 하는 주체로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54.6%로 가장 많았으나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40.8%로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저축수단으로는 은행 예·적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펀드나 주식은 낮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저축수단으로 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나 주식으로 목돈을 모으기에는 저축액이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저축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안하는 이유로는 '귀찮아서, 부모님이 아직은 어리다고 하여서, 필요할 때 쓰기위해서 등'의 기타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어진 범주가 중학생들이 저축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제한적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기타'에 자유 응답한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응답범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83.8%로 나타나 많은 수가 현재는 저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축의 필요성은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저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저축을 하고 있지 않은 중학생들이 응답한 예상 월평균 저축액으로는 1만원에서 2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저축액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둘째, 저축설계행동 점수는 어떠한가?

저축설계행동 점수는 현재상태평가-목표설정-계획-행동-평가의 5단계 및 총점으로 분석한 결과, 총점 평균은 19.74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중학생들의 경우 체계적으로 저축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축 생활 교육을 통하여 전반적인 점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단계별로는 행동단계의 점수(3.14점)가 가장 높고 계획단계의 점수(2.00)가 가장 낮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청소년의 저축설계행동 단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다양한 저축 대안의 검색과 비교 행동임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추후 저축에 대한 교육 시 우선적으로 개선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저축설계행동은 단계별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저축설계행동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저축실태 및 저축설계행동 점수는 어떠한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저축실태를 살펴보면,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이고, 가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총저축액수가 많았으며, 어머니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저축을 초등학교 이전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저축설계행동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아 총점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단계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이 어릴수록 목표설정 점수가 높고, 어머니 연령이 어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가점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고, 가계 경제생활 수준을 여유롭게 인식한 집단에서 계획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점수가 3점(보통이다)이하로 나타나 저축설계행동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해석 하는데 예는 무리가 있겠다.

넷째, 저축실태에 따른 저축설계행동 점수는 어떠한가?

저축실태에 따른 저축설계행동 단계별 점수와 총점은 저축실태 중 월평균저축액, 총저축액, 저축주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저축설계행동 점수는 월평균 저축액과 총저축액이 적은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저축주체에 따라 본인이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교적 연구의 결과가 덜 보고 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축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중학생들의 저축을 저축실태 및 저축설계행동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저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저축을 정의함에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 부모님이 대신하여 주는 저축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점과 저축설계행동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 그리고 조사대상을 인천지역으로 한정된 점은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되겠다.